

영광, 재해보험 '벼' 품목 오는 23일까지 가입 독려

영광군은 농작물 재해보험 '벼' 품목을 오는 23일까지 각 지역농협에 가입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영광군에서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벼, 콩, 참다래 등 3개 품목이며 벼는 6월 23일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콩은 7월 21일까지, 참다래는 7월 7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에 대한 90%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기농 인증을 한 농가에 한해 자부담료 10%를 군비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벼 재배 농가 3,794농가(8,948ha)가 가입하여 가입률 91%로 6년 연속 도내 가입률 1위를 차지하였고, 재해피해로 24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지원되어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됐다.

/영광=서종민 기자

# 담양 민선 8기 '향촌복지' 실현 어르신 행복지수 상승

## 사회 참여 유도...삶의 활력·경제적 자립 두 마리 토끼 잡아

## 고향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생활... 어르신 생활 만족도 높아

담양군이 민선 8기 핵심 공약사항인 새로운 호도 행정 '향촌복지'를 통해 담양만의 복지모형을 구축하며 어르신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향촌복지'는 군민의 약 32퍼센트가 65세 이상 노인인구인 특성을 고려한 이 군수만의 맞춤 공약으로, 어르신들이 담양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확대는 최근 어르신들로부터 가장 호평을 받으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군은 군비 5억 5천여만 원을 추가해 현재 10일이던 공익형 일자리 활동 일수를 12일로 확대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이 군수가 취임 첫 업무보고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 이후 일어난 변화이다.

이 군수는 "일방적인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자리 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자리 대상이 대부분 교통약자인 점을 고려, 마을 단위의 신규 사업을 개발하는 등 어르신들의 이동을 최소화해 안전한 일자리를 조성했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 중인 한 어르신은 "내가 직접 일을 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돼 손자녀에게 용돈을 줄 수 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어 일상의 활력이 생겼다"고 전했다.

아울러 '담양형 통합돌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경로당과 요양시설의 기능 보강, 보건지소의 의료서비스 강화 등을 중심으로 4년간 7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르신들이 고향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보건지소의 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한 '우리마을 주치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우리마을 주치의'는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가 병원 이용이 불편한 가정에 직접 방문해 기본 진찰, 건강 지표 측정과 상담, 치매와 우울 검사 등을 진행하면서 맞춤형 운동법을 알려주고 자가관리 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이다.

또한 주민들의 건강 요구도와 만성 질환 유병률 증가로 보건기관의 다양한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기능



을 강화한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주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각지대 독거노인을 자원봉사자와 1:1로 연결해 정기적인 안부를 확인하는 어르신 지킴이단의 확대 운영, 가구별 예·경보 시설 설치 시범사업,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수북면에 거주하고 있는 한 어르신은 "군에서 직접 방문해 주기적으로

관리해주시 동네를 떠나지 않아도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이병노 군수는 "향촌복지 정책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부모님 마음을 달래드리면서 어르신들의 뜻을 받을 수 있는 '호도행정' 실현 방안의 집약체"라며 "어르신들이 담양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담양만의 특색있는 복지모형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승채 기자

장성, 6월 1기분 자동차세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장성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만 9197건, 총액 16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 초과). 단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300원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2기분 자동차세 선납도 가능하다. 6월 말까지 2기분 자동차세 전액을 납부하면 연세액 3.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세무회계과(061-390-7286)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심재식 기자

# 함평,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박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농촌진흥청 공모에 선정돼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제 곡물 가격 급등, 식량 자급률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오는 2024년까지 2년간 20억 원을 투입, 생산-저장-가공-유통 등 콩 재배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자립형 융복합 특화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콩 재배 전과정 기계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계화 작업에 적합한 신품종(대찬, 신품, 미풍 등)을 도입해 벼 대체 작목으로 육성한다.

올해 초부터 콩 기본교육을 실시해 논콩 우수 생산단지 노후우를 농가와 공유하고,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 컨설팅을 의뢰해 농업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새로 육성한 기계화 품종을 확대 공급하고, 파종전·후 습해 방지를 위한 본답 관리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기계 수확에 유리한 품종을 확대 공급함과 동시에 대장, 장풍과 같은 신품종 비교포를 조성해 다양한 품을 보급하고, 두부 등 콩을 활용한 가공 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콩 재배 기술 확립과 농작업 기계화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다"며 "아울러, 단순 생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콩 가공 상품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용희 기자

# 장흥, 미식관광 활성화로 500만 관광객 유치한다

## 토요시장 먹거리 골목, 한식 체험관 조성 등 추진 논의

장흥군이 미식관광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 500만명 달성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관광 선택의 주요 요소로 '미식, 식도락, 맛집' 등의 키워드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장흥군은 이같은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15일 첫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미식관광 관련 업무별 사업 추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9개 부서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토요시장 먹거리 특화 골목 조성, 한식 체험관 조성, 장흥한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장흥맛집 육성, 장흥 특화표고빵 개발 등의 의견들이 논의됐다. 맛 칼럼니스트, 유명 셰프, 여행작

가 등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미식관광 콘텐츠도 개발한다.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지역, 계절, 테마, 타겟별 미식투어 상품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성 군수는 "최근 미식관광에 대한 관심이 광장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 특산물 등과 연계한 상품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 화순, 하반기 계절 근로 프로그램 참여 농가 수시 모집

## 기존 5개월에서 연장 3개월...최대 8개월 근로 가능

화순군은 농촌지역의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모집을 진행한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 또는 영농법인, 농업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배 작물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계절근로자 배정이 가능하다.

고용주로 참여하는 농가는 계절근로자가 거주할 적절한 주거 환경을 갖춘 숙소를 반드시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면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 지급 및 휴식 시간과 휴일 등을 보장하여야만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에 모집된 인원은 7월 말에서 8월 초에 입국하

여 최대 8개월 동안 근무가 가능하다.

앞서, 군은 지난 5월 4.5일 양일에 걸쳐 필리핀과 계절근로자에 대한 농업 분야 MOU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농촌 일손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번기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주영현 기자



장성군  
Jangseong



색(色)채도시 장성에서 즐기는 색(色)다른 여행

# 엘로우시티 장성